

철강금속신문은 1994년 창간 이후 전문 정보의 신속 정확한 전달, 업계 대변지, 업계 교류의 장(場)이라는 창간 정신을 잊지 않고正道를 걸으며 업계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올해로 본지(本紙)가 창간 25주년을 맞이하면서 25인의 철강 CEO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편집상 무순위로 실는 것을 양해 바란다.<편집자 주>

“기업 경쟁력 향상에 조언해 주길”



고려제강
홍영철 회장

지난 1994년 창간 이래 국내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철강금속신문의 임직원 여러분께 고려제강을 대표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정보의 제공을 통해 국내 철강업

계가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철강금속신문이 업계를 대변하는 전문지로서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헤쳐나가는 철강업계의 고민을 함께하고,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기업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조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철강업계 고충 귀담아 들어주길”



동국제강
김연국 사장

철강금속신문은 1994년 창간 이후 지난 25년간 철강산업의 동반자로서 정보제공은 물론 각 기업 간 화합과 소통의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2019년은 그 어느 시기보다 바쁘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철강금속신문이 앞장서서 철강업계의 고충을 귀담아듣고, 업계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 주어 철강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주시길 바랍니다.

철강금속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회사는 물론, 임직원 모두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강관 업계 어려움 극복 도움 주길”



세이제강
김석일 대표

철강금속신문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내 강관업계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 쿼터제와 얽힌 데 덮친 격으로 EU, 터키 등에서 강관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제재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수록 서로 단결하고 부흥시킨다는 ‘단란홍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관련 업계가 똘똘 뭉쳐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대응하고 협력한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강금속신문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철강산업 발전 위해 헌신하길”



한국철강
문종인 대표

철강산업 전문지를 대표하는 철강금속신문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5년간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며 언론의 사명을 다해 오신 철강금속신문 배

정운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밑바탕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철강기업들이 더욱 발전하여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철강금속신문이 철강산업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언론으로 발돋움 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철강업계 희망 주는 신문 되길”



코스틸
안도호 대표

철강금속업계 정통 전문지 철강금속신문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강금속신문은 산업 현장 곳곳을 역동적으로 누비면서 업계의 현재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성, 극복해야 하는 도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철강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철강금속신문의 투철한 직업관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전문지로서의 사명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철강업계의 희망을 전해주는 신문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소통·협력 촉진 매체로 성장하길”



노벨리스크리아
사친 사푸테 사장

알루미늄 압연업계는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의 공급과잉 등 대외적으로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확한 정보와 다양하면서도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며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매체로서 철강금속신문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25주년을 축하하며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보 제공 감사”



풍전비철
송동훈 회장

한국 기초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가치와 이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올

바르게 전달하는 매개체이자 비빌 언덕이 돼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당사는 적극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철강금속신문과도 상생 협력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철강금속신문 모든 임직원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어려움 극복 구심체 역할 해 주길”



현대중합특수강
임영빈 대표

철강금속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강금속신문은 1994년 창간한 이래 철강산업에 특화된 전문 언론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현재 지속적 경기 침체와 무역분쟁 등의 대외적 요인으로, 철강업계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철강업계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며, 철강금속신문이 그 구심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심층적 보도를 통해 업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철강업계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며, 철강금속신문이 그 구심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심층적 보도를 통해 업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어려움 함께 나누는 등불 되기를”



조일미늄
이영호 대표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지 철강금속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25년 동안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철강금속신문 임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언론 환경에서 업계 대변지라는 초심을 확고히 지키고 세우는 철강금속신문의 외길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업계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주는 언론사가 되길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 주도하길”



TCC스틸
조석희 사장

철강·금속업계의 변화와 함께하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신문으로 우뚝선 철강금속신문이 창간 25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전 산업분야에 변화의 물결을 이끌고 있는 상황 속에 철강·금속업계가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강금속신문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철강금속 업계 나아갈 길 제시하길”



동국산업
안성철 대표

철강금속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철강금속신문은 창간 이래로 철강·금속업계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전문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매개체 역할을 통해 철강·금속업계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강금속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 시대 맞이하는 밝은 미래 기대”



엠스틸
한길수 대표

철강금속신문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강업계 내 꾸준한 교류를 통한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는 업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

니다.

혁신을 거듭하며 걸어온 지난 25년간의 행보를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철강금속신문의 밝은 미래가 기대됩니다.

엠스틸 전 임직원의 진심 어린 마음을 모아 철강금속신문의 밝은 미래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